"뇌전이암 치료 실패 '암연관섬유모세포' 때문"

화순전남대병원 문경섭·이경화 교수 '저항성 핵심' 새로운 단서 최초 규명 "'IL26·CX3CL1' 차단시 종양 성장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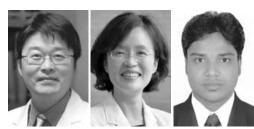
뇌로 전이된 암이 항암제와 방사선 치료에 잘 반응하지 않는 이유가 화순전남대병원 연구팀 에 의해 밝혀졌다.

21일 화순전남대학교병원에 따르면 그동안 뇌전이 환자에게 표준치료를 시행해도 효과가 떨어지는 경우가 많았지만 '왜 치료가 듣지 않 는지'에 대한 정확한 규명은 없었다. 이번 연구 는 암세포뿐 아니라 그 주변을 둘러싼 미세환경 이 치료 결과를 좌우한다는 사실을 입증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화순전남대병원 신경외과 문경섭 교수와 병 리과 이경화 교수 연구팀은 뇌전이 폐암 조직 에서 발견되는 '암연관섬유모세포(CAF)'가 치료 저항성의 핵심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확 인했다.

연구에 따르면 암세포가 사이토카인 IL26(인 터루킨-26)과 CX3CL1 신호 단백질을 분비해 항암제와 방사선에 맞서 버티도록 만든다.

실험 결과 IL26은 JAK-STAT3 경로를, CX3 CL1은 AKT-mTOR 경로를 활성화시켜 암세 포의 침투력과 생존력을 높였으며 이에 따라 상



피간엽이행(EMT)과 암줄기세포 특성이 강화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두 신호를 차단하자 종양의 성장 속도 가 현저히 감소했으며 특히 IL26 억제 실험에 서는 동물모델에서도 치료 효과가 뚜렷하게

연구팀은 "이번 연구는 뇌전이암에서 암세포 자체가 아니라 그 주변에서 암을 돕는 '조력 세 포'가 치료 실패의 원인임을 밝혀낸 것이다"며 "IL26·CX3CL1 신호를 제어하면 뇌전이 폐암 환자의 치료 반응성을 크게 높일 수 있을 것이 다"고 강조했다.

이번 연구 결과는 국제학술지 Experimental Hematology & Oncology (실험혈액학&종양학· IF13.5) 2025년 9월호에 게재됐으며 제1저자인 S. M. Abdus Salam 연구원이 수행했다.

해당 논문은 생명과학 분야의 우수한 연구 성 과를 소개하는 포스텍 생물학연구정보센터(BRI C)의 '한국을 빛내는 사람들(한빛사)'에도 선정 돼 국내 연구 역량을 세계에 알렸다. /기수희기자



광주기독병원은 지난 20일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로 조성된 카딩턴라파기념관(소화기전문센터) 개소식을 가졌다.

〈광주기독병원 제공〉

광주기독병원 '소화기전문센터' 개소

지하 1층-지상 2층…환자 중심 환경 선교정신 기념 카딩턴 기념관도 조성

광주기독병원이소화기전문센터를 개소했다. 21일 광주기독병원에 따르면 전날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로 조성된 소화기전문센터 개소 식을 가졌다.

개소식은 병원 재단 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권용식 목사(재단 이사)의 기도로 시작해 조재 영 기획예산과장의 건축보고, 박상욱 소화기전

문센터장의 인사말, 주계옥 목사(재단 이사장) 와 이승욱 병원장의 축사 등으로 진행됐다.

소화기전문센터는 2023년 8월 착공, 2년여의 공사 끝에 최근 완공됐다. 의료시설(연면적 2천9 88㎡)과 부설주차장(연면적 3천615㎡)을 포함한 복합공간으로 1층에 소화기내과 진료실, 초음파 실, X-ray실, 소화기 기능검사실이, 2층에는 내시 경검사실, ERCP실, 초음파 및 처치실을 조성됐 다. 진료와 검사, 치료 공간의 동선을 효율적으로 배치해 환자 중심의 진료 환경을 구축했다.

지하 1층에는 병원의 역사와 선교 정신을 기 해 왔다.

념하는 카딩턴라파기념관과 근린생활시설을 마련해 지역 주민들도 쉽게 찾고 활용할 수 있 는 열린 공간으로 조성했다.

이승욱 병원장은 "소화기전문센터와 카딩턴 기념관 개소는 광주기독병원의 120년 역사를 기념함과 동시에 미래를 향한 새로운 발걸음이 될 것"이라며 "지역사회와 함께 호흡하는 병원 으로서 환자들에게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 하고 카딩턴 선교사의 정신과 나눔의 가치를 지 속적으로 실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광주기독병원은 1905년 놀란 선교사가 설립한 광주제중원이 전신이며 120년 동안 광 주와 호남 지역의 대표적인 의료기관으로 성장 /기수희 기자



광주 태영명가한의원 '봉선점' 개원

향기요법 기반···수완·상무 이어 3번째 최문식 대표원장 "전통·현대 융합 치유"

광주 태영명가한의원이 수완동 본점과 상무 점에 이어 세 번째 지점인 '봉선점'을 새롭게 개

21일 태영명가한의원에 따르면 최근 문을 연 봉선점은 향기요법을 기반으로 한 맞춤형 한방 치료를 통해 몸과 마음의 조화를 추구하는 환자 중심의 진료를 목표로 하고 있다.

내원 환자들이 치료와 함께 심리적인 안정을 느낄 수 있도록 편안한 공간 구성과 차분한 인테 리어를 적용했다.

봉선점은 최문식 대표원장이 한의학의 전통 과 현대 감각을 융합한 새로운 형태의 치유를 선보일 예정이다.

〈사진〉

최 원장은 "향기요법은 단순한 보조치료가 아니라 환자의 정서적 균형과 회복력을 돕는 중 요한 한방요법"이라며 "환자들의 마음과 몸이 함께 회복될 수 있도록 진심을 다해 진료하겠 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 태영명가한의원은 향후 봉선점을 중심으로 한방 향기치료 연구와 심신치유 프로 그램을 더욱 강화해 지역사회의 건강 증진에 기 여할 계획이다. /기수희 기자

조선대병원 "AI 기반 데이터 통합 구축"

최근 'CDW·CDRS 구축' 구현보고회 병원 내 데이터 표준화·연계 플랫폼 외부·기업 열람·활용 '안심존'도 구축

조선대병원은 "최근 병원 8층 회의실에서 'C DW·CDRS (Clinical Data Warehouse & Clinic al Data Registry System) 구축사업 구현보고 회'를 개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보고회는 지난 3월부터 추진된 데이터 통합·활용 기반 구축사업 결과를 공유하며 병 원 진료·연구 데이터를 안전하게 추출하고 활 용할 수 있는 과정을 시연 중심으로 소개하기 위해 마련됐다.

사업의 핵심인 CDRS 솔루션은 병원 내 진료, 검사, 영상, 보험청구 등 다양한 데이터를 표준 화하고 연계해 연구자와 임상현장에서 필요한 데이터를 검색, 추출 및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 하는 통합 플랫폼이다. 이를 통해 연구기획, 임 상분석, 진료 프로세스 개선 등 데이터 활용 체 계를 한층 고도화했다.

또 외부 연구기관 및 기업이 안전하게 의료 데이터를 열람하고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 안 심존(Data Safe Zone)'도 구축했다.

이를 기반으로 역량 있는 교수진과 산업체가 공동으로 데이터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산학연 협력체계를 마련했으며,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실제 현장형 데이터 연구와 AI 기반 헬스케어 서비스 개발을 위한 매칭이 가능한 환경을 완성

김진호 병원장은 "CDW·CDRS 구축은 병원 내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정비함과 동시에 기업 이 필요로 하는 의료 데이터 연구 기반을 개방 적으로 제공해 의료 데이터 산업의 갈증을 해 소할 수 있는 실질적 발판을 마련한 사업"이 라며 "조선대병원이 주도하는 데이터 안심존 과 공동연구 체계를 통해 산업계와 병원이 함 께 성장하는 데이터 생태계 모델을 실현하겠 다"고말했다.

한편, 조선대병원은 향후 해당 사업을 기반으 로 임상연구 지원체계 고도화, 진료 프로세스 혁신, AI 분석모델 개발, 광주 AI 헬스케어 산 업 연계 등 데이터 중심의 의료 혁신을 지속적 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기수희기자



+